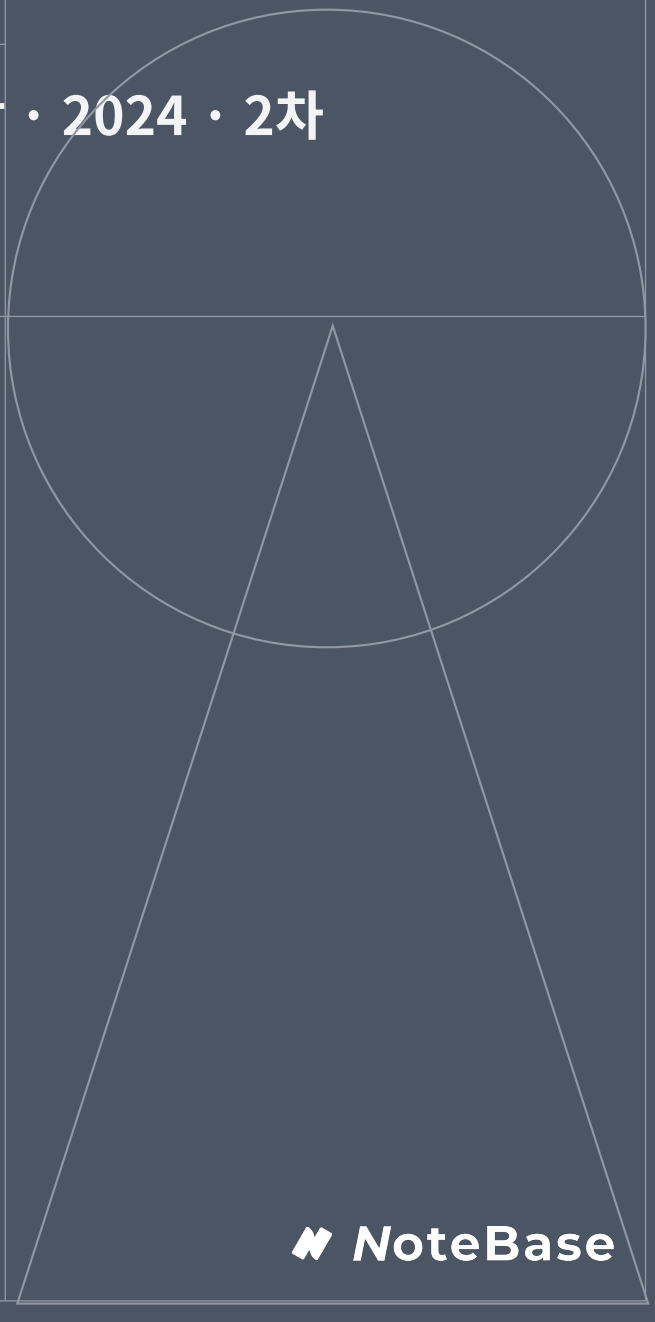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24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24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24 · 2차

문 1. 무역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밀턴(A. Hamilton)은 공업보호론을 주장하면서 관세, 수출입 금지, 보조금 등을 통한 보호무역정책을 강조하였다.

② 중상주의자들은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무역차액을 통해 금과 은을 확보하는 무역차액정책을 강조하였다.

③ 리스트(F. List)는 장래에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그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유치산업보호론을 주장하면서 보호무역정책을 강조하였다.

④ 아담스미스(A. Smith)는 중농주의를 비판하고 국제분업론과 자유경쟁론을 주장하면서 자유무역정책을 강조하였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무역정책 사상가와 각 사상가의 대표 정책 기조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인물·이론 매칭형 문항이다.

핵심 정리

해밀턴: 공업보호론 - 후발 공업을 키우기 위해 관세와 보조금 등 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인물이다.
중상주의자: 무역차액정책 -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억제하여 금과 은을 축적하려는 입장이다.
리스트: 유치산업보호론 - 장래 경쟁력이 생길 산업은 초기 단계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본 인물이다.
아담 스미스: 중상주의 비판과 자유무역 - 분업과 절대우위에 기초해 자유무역의 이익을 강조한 인물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해밀턴은 미국의 공업 육성을 위해 보호무역을 정당화한 대표 인물이다. 관세와 보조금 같은 정책수단으로 유치 공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② O: 중상주의는 수출 장려와 수입 억제를 통해 무역흑자를 만들고, 그 결과 금과 은을 축적하려는 사상이다. 무역차액정책을 강조했다는 설명이 정확하다.
③ O: 리스트는 후발국의 산업발전을 위해 유치산업을 일정 기간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다. 장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보호한다는 설명과 일치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중농주의를 비판하고"라는 연결이다. 아담 스미스는 무역정책사에서 주로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자유무역을 옹호한 인물로 정리한다. 더 정확히는 "아담 스미스는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분업론과 절대우위론에 기초하여 자유무역정책을 강조하였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아담 스미스가 자유무역론자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④도 맞는 문장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인물 매칭 문제는 대표 비판 대상과 대표 이론을 함께 봐야 하며, 스미스의 핵심 연결고리는 중상주의 비판과 자유무역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 문제가 나오면 먼저 이름과 대표 키워드를 한 쌍으로 묶어 판단한다. 해밀턴·리스트는 보호무역, 중상주의는 무역차액, 아담 스미스는 중상주의 비판과 자유무역으로 연결하면 대부분 빠르게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해밀턴·리스트는 보호, 중상주의는 흑자, 스미스는 중상주의 비판과 자유무역이다.

NoteBase

문 2. 국제수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② 해외근로자가 수취하는 급료 및 임금은 이전소득수지 항목에 기재된다.

③ 금융계정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준비자산으로 구성된다.

④ 자본이전과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자본수지 항목에 기재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제수지표에서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의 하위 항목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상수지는 재화·서비스 거래와 소득 흐름을 기록하는 계정으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본원소득수지는 노동이나 자본 제공의 대가를 기록하는 항목으로 급료·임금, 이자, 배당 등이 들어간다.
이전소득수지는 반대급부 없이 이전되는 소득을 기록하는 항목이다.
자본수지는 자본이전과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을 기록한다.
금융계정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준비자산으로 구성된다.

선지별 해설

1번: O.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2번: X. 틀린 부분은 "이전소득수지 항목"이다. 해외근로자가 수취하는 급료 및 임금은 노동 제공의 대가이므로 이전소득수지가 아니라 본원소득수지에 기재된다.
3번: O. 금융계정의 기능별 분류는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준비자산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4번: O. 자본수지는 자본이전과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을 기록하는 항목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2번은 돈이 국경을 넘는다는 점만 보고 모두 이전소득으로 묶어 버리면 틀리기 쉽다. 노동이나 자본 제공의 대가가 있으면 본원소득이고, 대가 없이 이전되면 이전소득이라는 구분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수지 항목 문제는 먼저 거래의 성격을 본다. 재화·서비스 거래이면 경상수지, 노동·투자 대가이면 본원소득수지, 무상 이전이면 이전소득수지, 자본이전이나 비생산·비금융자산 거래이면 자본수지, 금융자산 운용이면 금융계정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본원소득은 대가 있는 소득, 이전소득은 대가 없는 이전, 자본수지는 자본이전·비생산·비금융자산, 금융계정은 직접·증권·파생·기타·준비의 다섯 항목이다.

NoteBase

문 3. 전자신용장통일규칙(eUCP)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eUCP는 신용장에 eUCP가 적용된다고 명시하여야만 적용된다.

② eUCP가 적용되는 신용장은 UCP가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준거문언이 없더라도 당연히 UCP가 적용된다.

③ eUCP가 적용되는 신용장은 수익자가 종이서류의 제시만 선택하였거나 종이서류만 허용하는 경우에도 eUCP가 우선 적용된다.

④ eUCP가 적용되는 신용장의 경우, eUCP와 UCP가 적용되어 상충될 때에는 eUCP가 우선 적용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eUCP의 적용 범위와 eUCP와 UCP의 관계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eUCP는 전자제시를 수용하기 위해 UCP를 보완하는 전자신용장 보충규칙이다. UCP는 화환신용장의 기본 통일규칙이고, eUCP 신용장에도 별도 편입 문구 없이 함께 적용된다. 구별 기준은 전자기록 제시 여부와 충돌 시 어느 규정이 우선하는지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eUCP는 신용장이 eUCP 적용을 명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eUCP는 자동 적용 규칙이 아니라 해당 신용장이 eUCP 신용장임을 표시해야 효력이 생긴다.
2번: O. eUCP가 적용되는 신용장은 UCP의 명시적 편입 문구가 없어도 동시에 UCP의 적용을 받는다. eUCP는 UCP를 대체하는 독립 규칙이 아니라 UCP의 보충규칙이기 때문이다.
3번: X. 틀린 부분은 "eUCP가 우선 적용된다"는 표현이다. 수익자가 종이서류만 제시하기로 선택했거나 해당 eUCP 신용장에서 종이서류만 허용되는 경우에는 eUCP가 아니라 UCP만 적용된다.
4번: O. eUCP가 적용되는 신용장에서 eUCP와 UCP의 규정이 다른 결과를 만들면 그 범위에서는 eUCP가 우선한다. 보충규칙이지만 전자제시에 관한 특칙으로서 충돌 부분을 우선 정리하는 구조이다.

오답 포인트

3번은 eUCP 신용장이면 언제나 eUCP가 앞선다고 일반화한 점이 함정이다. eUCP 신용장이라도 실제 제시가 종이서류만으로 이루어지면 그 제시에는 UCP만 적용된다는 예외를 놓치면 틀리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신용장에 eUCP 적용 명시가 있는지 본다. 다음으로 전자기록 제시인지 종이서류만의 제시인지 구별한다. 마지막으로 eUCP와 UCP가 충돌하면 전자제시에 관한 특칙인 eUCP가 우선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eUCP는 명시되어야 적용되고, eUCP 신용장도 기본은 UCP이며, 종이서류만 제시하면 UCP만 적용된다.

NoteBase

문 4. 다음 (가)에 들어갈 용어는?

발라사(B. Balassa)가 분류한 경제통합의 유형 중 (가)은 회원국 간에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공동의 무역정책인 대외공동관세를 실시하며, 회원국 간에 상품뿐만 아니라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보장한다.

① 관세동맹(customs union)
② 공동시장(common market)
③ 경제동맹(economic union)
④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발라사가 분류한 경제통합 단계 중 공통 대외관세와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함께 갖춘 단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관세동맹은 회원국 간 관세를 철폐하고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공통 대외관세를 적용하는 단계이다.
공동시장은 관세동맹을 바탕으로 상품뿐 아니라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이동까지 허용하는 단계이다.
경제동맹은 공동시장에 더해 회원국 간 재정·통화·산업정책 등 경제정책의 조화 또는 통일까지 포함하는 단계이다.
완전경제통합은 경제동맹보다 더 높은 단계로 초국가적 기구 아래 경제 전반이 사실상 하나처럼 통합된 상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관세동맹'이다. 관세동맹은 회원국 간 관세 철폐와 공통 대외관세까지만 포함하며, 노동과 자본의 자유이동은 필수 요소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생산요소의 자유이동까지 보장하면 공동시장이다.'
② O: 제시문은 회원국 간 무역장벽 철폐, 비회원국에 대한 공통 대외관세,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모두 말하고 있으므로 공동시장에 해당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경제동맹'이다. 경제동맹은 공동시장을 넘어 경제정책의 조화나 통일까지 요구하는 더 높은 단계이다. 올바르게는 '경제정책 통합 설명이 없으면 경제동맹이 아니라 공동시장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완전경제통합'이다. 완전경제통합은 공동시장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초국가적 차원의 정책 일체화까지 전제한다. 올바르게는 '생산요소 자유이동만으로는 완전경제통합이 아니라 공동시장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관세동맹과 공동시장은 모두 공통 대외관세를 가진다는 점 때문에 혼동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여기에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공동시장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제통합 단계는 추가되는 요소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회원국 간 관세 철폐만 있으면 자유무역지역, 공통 대외관세가 붙으면 관세동맹, 생산요소 자유이동까지 있으면 공동시장, 경제정책 조화까지 있으면 경제동맹으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공동시장은 관세동맹 + 생산요소 자유이동, 경제동맹은 공동시장 + 경제정책 통합이다.

NoteBase

문 5. 무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벌러(G. Haberler)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무역의 발생원인을 설명하였다.

② 헥셔(E. Heckscher)-올린(B. Ohlin)정리의 제1명제는 요소가격균등화정리이고, 제2명제는 요소부존정리이다.

③ 아담스미스(A. Smith)의 절대우위론은 노동만을 유일한 생산요소로 간주하여, 재화의 가치가 투입되는 노동의 양으로 결정된다는 노동가치설에 기초를 두고 있다.

④ 리카도(D. Ricardo)의 비교우위론은 한 국가가 두 재화의 생산에 모두 절대우위에 있더라도 양국이 서로 다른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다면 무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요 무역이론가와 대표 개념을 정확히 연결하고, 특히 헥셔-올린 이론의 기본 명제와 파생 정리를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핵심 정리

하벌러: 기회비용설로 비교우위와 무역 발생 원인을 설명한 학자이다.
헥셔-올린: 국가 간 요소부존의 차이 때문에 각국이 풍부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수출한다고 본 이론이다.
아담 스미스: 노동을 유일한 생산요소로 보고 노동가치설에 기초하여 절대우위를 설명한 학자이다.
리카도: 한 나라가 모든 재화에서 절대우위를 가져도 상대적 생산비 차이, 즉 비교우위가 다르면 무역이 성립한다고 본 학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하벌러는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노동가치설에서 벗어나 기회비용 개념으로 재설명하였다. 무역의 발생원인을 기회비용 차이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맞는 선지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제1명제는 요소가격균등화정리이고, 제2명제는 요소부존정리"라는 연결이다. 헥셔-올린 체계에서 기본 명제는 요소부존의 차이가 무역패턴을 결정한다는 요소부존정리이고, 요소가격균등화정리는 무역의 결과로 요소가격이 같아지는 방향을 설명하는 파생 정리이다. 올바르게는 "제1명제는 요소부존정리이고, 제2명제는 요소가격균등화정리이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아담 스미스의 절대우위론은 고전파의 노동가치설을 바탕으로 한다. 노동만을 생산요소로 보고 재화의 가치가 투입노동량으로 결정된다고 본다는 설명이 절대우위론의 전제와 일치하므로 맞는 선지이다.

④ O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절대우위의 유무가 아니라 상대적 생산비의 차이에 초점을 둔다. 한 나라가 두 재화 모두에서 절대우위에 있어도 각국의 비교우위가 서로 다르면 특화와 무역이 발생하므로 맞는 선지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헥셔-올린 이론과 요소가격균등화정리를 모두 아는 수험생도 명제의 순서를 혼동하면 틀리기 쉬운 선지이다. 발문이 "옳지 않은 것"이라는 점까지 놓치면 맞는 선지를 고르고도 실수할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 유형은 학자명과 대표 키워드를 먼저 연결한 뒤, 문장이 원인 설명인지 결과 설명인지를 구분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헥셔-올린에서는 무역의 원인은 요소부존 차이이고, 요소가격균등화는 무역 이후의 결과라는 순서로 정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하벌러=기회비용, 스미스=절대우위, 리카도=비교우위, 헥셔-올린=요소부존 차이로 무역 발생, 요소가격균등화=무역의 결과이다.

NoteBase

문 6. Incoterms® 2020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FOB조건에서 매도인은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ㄴ. CIP조건에서 매도인은 ICC(A) 약관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보험금액은 매매계약에 약정된 대금의 최소 110%이어야 하며, 보험금을 지급할 통화는 매매계약에서 정한 통화와 같아야 한다.
ㄷ. DAP조건에서 매도인이 지정목적지에서 양하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비용을 매수인에게 상환 요구할 수 없다.
ㄹ. DDP조건에서 매수인은 물품의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을 수행하고, 수출관세 및 수입관세를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Incoterms 2020에서 각 조건별 운송계약, 보험, 양하비용, 수출입통관 의무의 귀속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FOB는 지정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고, 본선 이후의 주운송계약과 운임은 매수인 부담이다.
CIP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도 부보하는 조건이며, Incoterms 2020에서는 최소 ICC(A) 수준과 계약대금의 110% 보험금액이 기준이다.
DAP는 지정목적지까지 매도인이 운송하지만 양하는 매수인 부담인 조건이며, 매도인이 운송계약상 양하비를 지급했다면 그 비용은 별도 합의 없이는 매수인에게 다시 청구되지 않는다.
DDP는 매도인 의무가 가장 무거운 조건으로, 수출통관과 수입통관 및 관련 관세 부담까지 매도인이 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1번은 ㄱ, ㄷ의 조합인데 ㄷ은 옳지만 ㄱ이 틀려서 오답이다. ㄱ의 틀린 표현은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부담"이다. FOB에서는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 책임을 지고, 목적항까지의 운송계약 체결과 주운임 부담은 매수인 몫이다.
2번: X. 2번은 ㄱ, ㄹ의 조합인데 ㄱ과 ㄹ이 모두 틀려서 오답이다. ㄱ은 FOB의 운송비 부담 주체를 거꾸로 적은 진술이다. ㄹ의 틀린 표현은 "매수인은 물품의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을 수행하고, 수출관세 및 수입관세를 모두 부담"이다. DDP에서는 오히려 매도인이 수출입통관과 관련 관세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통상 양하만 담당한다.
3번: O. ㄴ, ㄷ의 조합으로 두 진술이 모두 옳다. ㄴ은 CIP에서 매도인이 ICC(A) 약관 수준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보험금액도 계약대금의 최소 110%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맞다. 보험금 지급 통화도 매매계약 통화와 같아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ㄷ도 맞다. DAP에서는 양하가 원칙적으로 매수인 부담이고, 매도인이 운송계약에 포함된 양하비를 지급했더라도 별도 합의가 없으면 이를 매수인에게 추가 상환 청구할 수 없다.
4번: X. 4번은 ㄴ, ㄹ의 조합인데 ㄴ은 옳지만 ㄹ이 틀려서 오답이다. ㄹ의 잘못은 DDP를 DAP나 EXW처럼 이해한 데 있다. DDP는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수출입통관 및 관세까지 부담하는 조건이다.

오답 포인트

FOB를 보면 매도인이 운송 전부를 맡는다고 오해하기 쉽고, D조건을 보면 목적지 인도라는 이유만으로 통관과 양하까지 모두 매도인 부담이라고 섞어 기억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FOB의 운송계약 주체와 DAP·DDP의 양하 및 통관 주체를 뒤바꾸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Incoterms 선지는 먼저 선적항 기준인지 목적지 기준인지 나눈 다음, 운송계약 체결 주체, 보험 부보 의무, 양하비용 부담, 수출입통관 및 관세 부담의 네 축으로 끊어서 보면 판단이 정리된다. 한 축이라도 주체가 바뀌면 그 선지는 틀린 선지이다.

암기 포인트

FOB는 선적항 본선적재까지, CIP는 A조건 110%, DAP는 양하가 매수인, DDP는 통관·관세가 매도인이다.

NoteBase

문 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에서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인은 인도가 완전히 또는 계약에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에,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도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매도인이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다량의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 매수인은 초과분을 수령하거나 이를 거절할 수 있다.

④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다른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상실되지 아니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CISG상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구제에서 계약 전체 해제의 요건, 법원·중재판정부의 유예기간 부여 가능 여부, 초과인도 처리, 손해배상청구의 병존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본질적 계약위반은 상대방이 계약으로 기대한 이익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중대한 위반을 말한다.
유예기간은 법원이나 중재판정부가 채무자에게 추가 이행기회를 주는 기간을 말한다.

핵심 구분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해 이행청구,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CISG는 매수인이 구제를 구하는 경우 법원이나 중재판정부가 매도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일부 미인도나 부적합은 해당 부분에 대한 구제가 원칙이고, 계약 전체 해제는 그 위반이 계약 전체에 대한 본질적 계약위반이 될 때에만 가능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매도인이 전부를 인도하지 않거나 계약적합성이 없는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도 곧바로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불이행 또는 부적합이 계약 전체에 대한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에만 전체 해제가 가능하므로 옳다.

② X
CISG는 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가 매도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본다. 매수인의 권리구제를 재판기관이 임의로 늦추지 못하게 한 규정이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도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올바른 표현: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수인이 구제를 구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없다."

③ O
매도인이 계약수량을 초과하여 인도하면 매수인은 초과분을 수령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초과분을 수령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가격으로 대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초과분 수령 또는 거절 선택권이 있다는 진술은 옳다.

④ O
손해배상청구권은 다른 구제수단과 병존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해제나 대금감액 등 다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실되지는 않으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2번은 국내법상 상당기간 최고나 추완기회 부여와 비슷한 감각 때문에 쉽게 속기 쉽다. 그러나 CISG는 매수인이 이미 권리구제를 구하는 상황에서 법원·중재판정부가 매도인에게 재량으로 유예기간을 더 주지 못하게 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CISG 권리구제 문제는 먼저 계약 전체 해제 요건이 본질적 계약위반인지, 다음으로 재판기관의 유예기간 부여가 허용되는지,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다른 구제와 병존하는지를 순서대로 보면 된다.

암기 포인트

CISG는 전체 해제는 본질적 계약위반, 유예기간 부여는 불가, 손해배상은 다른 구제와 병존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8. 포터(M. E. Porter)의 가치활동의 배치-조정 모델에 따른 국제경영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개별국가 중심 전략의 경우, 가치활동의 배치는 지역적으로 집중시키면서 가치활동의 조정수준은 낮다.
ㄴ. 고도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의 경우, 가치활동의 배치는 지역적으로 분산시키면서 가치활동의 조정수준도 높다.
ㄷ. 수출 중심 전략의 경우, 가치활동의 배치는 지역적으로 분산시키면서 가치활동의 조정수준은 낮다.
ㄹ. 순수한 세계적 전략의 경우, 가치활동의 배치는 지역적으로 집중시키면서 가치활동의 조정수준도 높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포터의 가치활동 배치-조정 모델에서 각 국제경영전략이 지역적 집중·분산과 조정수준 고·저 중 어디에 놓이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개별국가 중심 전략은 각국 시장에 맞추어 가치활동을 여러 나라에 분산하므로 지역적 분산에 가깝고, 국가별 자율성이 커서 조정수준은 낮다.
고도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은 여러 나라에 생산·판매 거점을 두면서도 기업 내부 네트워크를 강하게 연결하므로 지역적 분산·높은 조정에 해당한다.
수출 중심 전략은 생산 등 핵심 가치활동을 본국이나 소수 거점에 모아 두고 해외에는 수출로 대응하므로 지역적 집중·낮은 조정에 해당한다.
순수한 세계적 전략은 가치활동을 소수 최적 거점에 집중하면서 전 세계 단위로 통합 운영하므로 지역적 집중·높은 조정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 ㄷ의 조합인데 둘 다 틀리다. ㄱ의 틀린 부분은 "지역적으로 집중"이다. 개별국가 중심 전략은 국가별 적응을 위해 가치활동을 분산한다. ㄷ의 틀린 부분은 "지역적으로 분산"이다. 수출 중심 전략은 본국 또는 소수 거점에 활동을 집중하고 조정수준은 낮다. 올바르게는 개별국가 중심 전략은 분산·저조정, 수출 중심 전략은 집중·저조정이다.

② X
ㄱ, ㄹ의 조합인데 ㄱ이 틀려서 성립하지 않는다. ㄱ의 틀린 부분은 역시 "지역적으로 집중"이다. 개별국가 중심 전략은 분산·저조정이다. ㄹ은 순수한 세계적 전략을 집중·고조정으로 본 것이므로 맞다. 올바른 조합은 ㄱ 대신 ㄴ이 들어간 ㄴ, ㄹ이다.

③ X
ㄴ, ㄷ의 조합인데 ㄷ이 틀려서 성립하지 않는다. ㄴ은 고도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을 분산·고조정으로 본 것이므로 맞다. ㄷ의 틀린 부분은 "지역적으로 분산"이다. 수출 중심 전략은 집중·저조정이 맞다. 올바르게는 ㄴ, ㄹ의 조합이 맞다.

④ O
ㄴ, ㄹ의 조합이다. 고도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은 여러 지역에 활동을 분산하면서도 본사와 해외 거점을 긴밀히 연결하므로 분산·고조정이다. 순수한 세계적 전략은 최적 거점에 활동을 집중하면서 세계적으로 통합 운영하므로 집중·고조정이다.

오답 포인트

개별국가 중심 전략과 수출 중심 전략을 모두 저조정으로 기억하면서 배치 축까지 함께 뒤집는 경우가 많다. 이 문항은 특히 ㄱ의 "집중"과 ㄷ의 "분산"을 서로 바꿔 넣어 배치 축을 혼동하게 만든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배치 축부터 본다. 현지시장 적응을 강조하면 분산, 본국이나 소수 거점에서 생산해 세계에 공급하면 집중이다. 그다음 국가 간 활동을 강하게 묶어 운영하면 고조정, 각국 자율성이 크면 저조정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개별국가 중심은 분산·저조정, 해외직접투자는 분산·고조정, 수출 중심은 집중·저조정, 순수한 세계적 전략은 집중·고조정이다.

NoteBase

문 9. 탄력관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 수입물품에 대한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② 국제협력관세는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할 수 있는 관세이다.

③ 할당관세는 특정물품이 정부가 정한 일정수량까지 수입될 때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에는 고율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④ 계절관세는 농산물 등과 같이 계절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물품의 경우,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부과하거나 낮게 부과하는 관세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탄력관세의 종류별 정의를 구별하는 문제이며, 특히 국제협력관세와 편익관세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핵심 개념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보조금으로 생긴 가격경쟁력 왜곡을 상쇄하기 위해 그 보조금 상당액만큼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국제협력관세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관세를 양허하는 관세이다.
편익관세는 조약상 편익을 받지 못하는 나라의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조약의 편익 범위 안에서 관세상 혜택을 부여하는 관세이다.
할당관세는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 수량을 넘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이다.
계절관세는 계절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물품에 대하여 계절별 국내외 가격차를 고려해 기본세율보다 높이거나 낮게 조정하는 관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상계관세의 설명으로 맞다. 수출보조금으로 인해 수입품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수입국은 그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국제협력관세'라는 명칭이다. 선지의 내용 자체는 조약상 편익을 받지 못하는 나라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조약의 편익 한도에서 혜택을 주는 관세이므로 편익관세의 설명이다. 국제협력관세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관세협상에 따라 관세를 양허하는 관세이다.

③ O
할당관세의 설명으로 맞다. 일정 물량까지는 저율을 적용하고, 한계수량을 초과하는 물량에는 고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④ O
계절관세의 설명으로 맞다. 농산물처럼 계절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가 크게 나는 물품에 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높이거나 낮게 조정하여 부과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문장 구조와 내용이 매우 그럴듯해서 이름만 바꿔 끼운 함정이다. '조약상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와 '이미 체결된 조약의 편익 한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국제협력관세가 아니라 편익관세를 떠올려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조금 상쇄'가 나오면 상계관세, '한계수량까지 저율'이 나오면 할당관세, '계절별 가격차'가 나오면 계절관세로 본다. 반면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관세협상'은 국제협력관세이고, '조약상 편익을 받지 못하는 나라에 조약 편익 범위 내 혜택 부여'는 편익관세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국제협력관세는 관세협상, 편익관세는 조약 편익의 확장 적용이다.

NoteBase

문 10.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서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제1수익자로부터 신용장을 양도받은 제2수익자가 다시 제3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ㄴ. 양도된 신용장은 신용장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하지만 보험 부보의 비율은 증가될 수 있다.
ㄷ. 개설의뢰인의 명의를 제1수익자의 명의로 대체하여 신용장을 양도한 경우, 제2수익자가 작성한 송장을 제1수익자의 송장으로 대체할 수 없다.
ㄹ. 신용장이 둘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양도된 경우, 조건변경을 거절한 제2수익자에게는 원신용장의 조건이 적용되고, 조건변경을 수락한 제2수익자에게는 변경된 조건이 적용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UCP600 제38조상 양도가능신용장의 재양도 금지, 양도 가능한 범위의 예외, 제1수익자의 송장 대체권, 복수 제2수익자에 대한 조건변경 효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양도가능신용장은 제1수익자의 요청으로 제2수익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재양도 여부의 기준은 제2수익자가 다시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는지인데, UCP600은 이를 금지한다.
양도된 신용장은 원신용장의 조건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나 금액, 단가, 만기일, 서류제시기간, 최종선적일 또는 선적기간은 감축할 수 있고 보험부보비율은 필요한 범위에서 높일 수 있다.
제1수익자는 제2수익자의 다른 서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송장과 환어음을 제2수익자의 송장과 환어음 대신 제출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①은 ㄱ, ㄷ이 모두 옳아야 하나 둘 다 틀리다.
- ㄱ의 틀린 부분은 '제2수익자가 다시 제3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제2수익자의 재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 ㄷ의 틀린 부분은 '제2수익자가 작성한 송장을 제1수익자의 송장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제1수익자는 자기 송장과 환어음을 제2수익자의 것과 대체할 수 있다.

② X
- ②는 ㄱ, ㄹ 조합인데 ㄱ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 틀린 부분은 ㄱ의 '제3자에게 양도 가능'이라는 문구이다. 올바르게는 ㄱ 대신 ㄴ이 들어가야 하므로 옳은 조합은 ㄴ, ㄹ이다.

③ X
- ③은 ㄴ, ㄷ 조합인데 ㄷ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 ㄴ은 양도된 신용장이 원신용장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되 보험부보비율은 증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다.
- ㄷ의 틀린 부분은 '송장을 대체할 수 없다'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송장과 환어음은 제1수익자가 자기 명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O
- ④는 ㄴ, ㄹ 조합으로 정답이다.
- ㄴ은 양도된 신용장이 원칙적으로 원신용장 조건을 그대로 따르되 보험부보비율은 필요한 범위에서 높일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 ㄹ은 신용장이 둘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양도된 경우 어떤 제2수익자가 조건변경을 거절해도 다른 제2수익자의 수락 효력은 유지되고, 거절한 자에게는 원조건이 그대로 남는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양도가능신용장'이라는 말만 보고 제2수익자의 재양도까지 허용된다고 착각하는 점과, 제1수익자의 대체권이 송장·환어음에만 한정된다는 점을 놓치는 것이다. 또한 조건변경은 복수 제2수익자 전원에게 일괄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각 제2수익자의 수락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효력이 갈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양도가능신용장 문제는 먼저 '누가 누구에게 넘기는가'를 본다. 제1수익자에서 제2수익자까지는 가능하지만 제2수익자에서 제3자까지는 불가이다. 다음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를 보면 조건은 제한적으로만 감축 가능하고 보험부보비율은 증액 가능하며, 서류는 제1수익자가 자기 송장과 환어음만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양도는 1회, 보험비율은 증액 가능, 송장·환어음은 제1수익자 대체 가능, 복수 제2수익자의 조건변경 효력은 각자 별개이다.

NoteBase

문 11. 해상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ICC(B)와 ICC(C)는 보험자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고 규정하는 포괄담보방식에 해당한다.

② 공동해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아닌 통상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있어야 한다.

③ 특별비용은 피보험목적물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공동해손비용과 구조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④ 손해방지비용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지급한 비용뿐만 아니라 제3자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해상보험의 담보방식과 공동해손, 특별비용, 손해방지비용의 개념 구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ICC(A)는 면책위험을 제외한 우연한 손해를 넓게 담보하는 포괄담보방식이다.
ICC(B)와 ICC(C)는 약관에 열거된 위험만 담보하는 열거담보방식이다.
공동해손은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의도적이고 합리적으로 행한 비상한 희생 또는 비용이 있을 때 성립한다.
특별비용은 피보험목적물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 중 공동해손비용과 구조비를 제외한 것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ICC(B)와 ICC(C)는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포괄담보가 아니라 약관에 적힌 위험만 담보하는 열거담보이다. 틀린 표현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ICC(A)가 포괄담보이고, ICC(B)와 ICC(C)는 열거담보이다'가 된다.

② X
공동해손은 통상적인 희생이나 비용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안전을 위한 비상한 희생 또는 특별한 비용이 있어야 성립한다. 틀린 표현은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아닌 통상적인 희생이나 비용'이다. 올바르게는 '의도적이고 합리적인 비상한 희생이나 비용'이 있어야 한다.

③ O
특별비용은 피보험목적물의 안전 또는 보존을 위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공동해손비용과 구조비를 제외한 비용이라는 정의가 맞다. 특별비용의 정의를 정확히 서술한 선지이다.

④ X
손해방지비용은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손해의 방지나 경감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제3자가 임의로 지출한 비용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제3자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중심이 된다'가 된다.

오답 포인트

①은 ICC(A)와 ICC(B)·(C)의 담보방식을 뒤바꾸는 전형적인 함정이다. ②는 공동해손의 핵심요건인 '비상성'을 빼고 통상비용으로 바꿔 놓은 점이 함정이다. ④는 특별비용, 손해방지비용, 제3자 비용을 한데 섞어 비용 개념을 흐리게 만든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해상보험 비용 문제는 먼저 '포괄담보인지 열거담보인지', '공동해손처럼 공동안전을 위한 비상한 희생인지', '피보험목적물 보존을 위한 특별비용인지', '피보험자나 대리인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인지'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정답을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ICC(A)는 포괄담보, ICC(B)·(C)는 열거담보, 공동해손은 비상한 희생, 특별비용은 보존비용에서 공동해손비용·구조비를 뺀 것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가)~(다)에 들어갈 환율의 종류에 대한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은 자국통화가 개입되지 않은 외국통화 간의 환율을 말한다. (나)은 자국통화와 한 외국통화 간의 환율을 의미하며, (다)은 (나)과 (가)에서 산출된 자국통화와 제3국 통화 간의 환율을 말한다.

① (가): 교차환율, (나): 재정환율, (다): 기준환율
② (가): 재정환율, (나): 기준환율, (다): 교차환율
③ (가): 교차환율, (나): 기준환율, (다): 재정환율
④ (가): 재정환율, (나): 교차환율, (다): 기준환율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교차환율, 기준환율, 재정환율의 정의와 산출 관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교차환율은 자국통화가 개입되지 않은 두 외국통화 사이의 환율이다.
기준환율은 자국통화와 한 외국통화 사이의 기본 환율이다.
재정환율은 기준환율과 교차환율을 이용해 계산한 자국통화와 제3국 통화 사이의 환율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가)를 교차환율로 본 점은 맞지만, (나)를 재정환율로 본 부분이 틀리다. 자국통화와 한 외국통화 간 환율은 기준환율이다. 또한 (다)를 기준환율로 본 부분도 틀리며, 올바르게는 재정환율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가)를 재정환율로 둔 점이다. 자국통화가 개입되지 않은 외국통화 간 환율은 교차환율이다. (나)는 기준환율로 맞지만, (다)는 교차환율이 아니라 재정환율이다.

③ O
(가)=교차환율, (나)=기준환율, (다)=재정환율로 연결되어 제시된 세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가)와 (나)의 위치를 바꿔 놓은 점이다. (가)는 교차환율이어야 하고, (나)는 기준환율이어야 한다. (다)를 기준환율로 둔 부분도 틀리며, 올바르게는 재정환율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교차환율과 재정환율을 같은 뜻처럼 섞으면 오답이 된다. 교차환율은 외국통화끼리의 직접 환율이고, 재정환율은 기준환율과 교차환율을 이용해 자국통화와 제3국 통화 사이를 계산해 낸 환율이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의에 자국통화가 아예 등장하지 않으면 교차환율로 본다. 자국통화와 한 외국통화의 직접 환율이면 기준환율로 본다. 그 둘을 바탕으로 자국통화와 제3국 통화의 환율을 산출하면 재정환율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외국통화끼리이면 교차환율, 자국통화와 외국통화의 직접 환율이면 기준환율, 그 조합으로 계산한 자국통화와 제3국 통화 환율이면 재정환율이다.

NoteBase

문 13. 세계무역기구(WTO)의 주요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혜국대우 원칙은 특정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최상의 혜택을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내국민대우 원칙은 어떤 상품이 한 국가에 수입되었을 때 그 상품은 당해 수입국 내에서 생산되는 동종의 상품과 동등한 조건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시장접근보장 원칙은 외국에서 국내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관세 등 조세를 제외하고 일체의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④ 투명성 원칙은 덤핑과 보조금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WTO의 주요 원칙인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투명성의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최혜국대우는 어떤 회원국에 준 유리한 대우를 다른 모든 회원국에도 차별 없이 확대하는 원칙이다.
내국민대우는 수입상품이 일단 국내시장에 들어온 뒤에는 국내산 동종상품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칙이다.
시장접근은 관세 이외의 수량제한이나 과도한 비관세장벽을 줄여 외국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보장하는 방향의 원칙이다.
투명성은 무역 관련 법령·제도·절차를 공표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여 회원국이 규범을 알 수 있게 하는 원칙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최혜국대우 원칙의 설명으로 맞다. 특정 회원국에 준 가장 유리한 혜택을 다른 회원국에도 비차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② O
내국민대우 원칙의 설명으로 맞다. 수입이 허용된 뒤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동종상품과 동등한 조건으로 취급해야 한다.

③ O
시장접근 원칙의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세는 허용될 수 있지만 쿼터 등 수량제한이나 과도한 비관세장벽으로 시장 진입을 막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투명성 원칙은 덤핑과 보조금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
이는 투명성 원칙이 아니라 불공정무역에 대한 무역구제제도의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투명성 원칙은 무역 관련 법규, 절차, 행정운용을 공개하고 통보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원칙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WTO 원칙과 무역구제수단을 섞어 놓은 선지이다.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는 투명성의 내용이 아니라 덤핑·보조금에 대응하는 별도의 구제수단이므로, 원칙의 이름과 제도의 기능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WTO 원칙 문제는 먼저 비차별 원칙인지, 국내시장 내 동등대우인지, 시장 진입 보장인지, 제도 공개와 예측 가능성인지로 나누어 판단한다.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나오면 투명성이 아니라 반덤핑·상계관세 같은 무역구제제도와 연결된 설명일 가능성이 크다.

암기 포인트

최혜국대우는 회원국 사이의 비차별, 내국민대우는 국내시장 안에서의 동등대우, 투명성은 공개·공표, 반덤핑·상계관세는 무역구제이다.

NoteBase

문 14.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522)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추심이 장래확정일 지급조건의 환어음을 포함하는 경우에 추심지시서에 상업서류(commercial document)가 D/P조건과 D/A조건 중 어느 조건으로 지급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하지만, 그런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D/P조건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②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은 추심의뢰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추심의뢰인이 지정한 은행을 추심은행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③ 추심의뢰은행이 제시은행(presenting bank)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심은행이 제시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

④ 추심지시서에 거절증서(protest) 작성에 관한 지시가 없는 경우, 추심에 관여하는 은행은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URC522에서 상업서류 인도조건, 추심 관련 은행의 지정 관계, 거절증서 작성의무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D/P는 지급과 상환하여 상업서류를 인도하는 방식이고, D/A는 인수와 상환하여 상업서류를 인도하는 방식이다.
추심의뢰은행은 의뢰인이 지정한 은행을 추심은행으로 이용하며, 제시은행이 특정되지 않으면 추심은행이 제시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
거절증서(protest)는 부도나 인수거절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이지만, URC522에서는 추심지시서의 구체적 지시가 있을 때만 문제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장래확정일 지급조건의 환어음이 포함된 추심에서는 상업서류를 D/A로 줄지 D/P로 줄지 추심지시서에 적어야 한다. 그 명시가 없으면 상업서류는 지급이 이루어질 때만 인도되므로 D/P로 처리된다는 설명이 맞다.

② O
URC522는 추심의뢰은행이 본인의 지시를 실행하기 위하여 본인이 지정한 은행을 추심은행으로 이용한다고 본다. 따라서 추심의뢰인이 지정한 은행을 추심은행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③ O
추심의뢰은행이 특정 제시은행을 지명하지 않으면 추심은행이 제시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은행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추심은행이 제시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이다. URC522는 추심지시서에 거절증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 지시가 없으면 추심 관련 은행이 거절증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 올바르게는 '추심지시서에 구체적 지시가 있을 때에만 거절증서 작성이 문제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실무상 분쟁에 대비하려면 은행이 당연히 protest를 해 줄 것처럼 보이게 만든 선지이다. 그러나 URC522는 은행의 의무를 지시된 범위로 한정하므로, 별도 지시가 없으면 거절증서 작성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URC522 문제는 먼저 은행이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와 무엇을 지시가 있어야만 하는지를 나누어 본다. D/P·D/A 같은 서류 인도조건, 추심은행·제시은행의 지정권, protest의무 유무를 조문 기준으로 분리하면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URC522는 D/P·D/A는 명시로 판단하고, protest는 지시가 없으면 의무가 없다는 구조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15. 다음 (가)에 들어갈 용어는?

현대무역이론 중 (가)은 동종산업 간에 발생하는 무역을 다양한 수요구조에 따른 제품차별화와 규모의 경제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차별화된 제품의 다양성과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된다.

① 대표적수요이론(representative demand theory)
② 제품수명주기이론(product life cycle theory)
③ 산업내무역이론(intra-industry trade theory)
④ 기술격차이론(technology gap theory)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현대무역이론 중 산업내무역이론의 핵심 키워드인 동종산업 간 무역, 제품차별화, 규모의 경제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대표적수요이론: 유사한 소득수준과 수요구조를 가진 국가 사이에서 공산품 무역이 활발해진다는 설명이다.
제품수명주기이론: 신제품이 도입기에서 성숙기로 이동하면서 생산지와 수출국이 변화한다는 설명이다.
산업내무역이론: 동종산업 내 차별화된 제품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서로 교역된다는 설명이다.
기술격차이론: 기술혁신국과 모방국 사이의 기술격차와 모방시차가 무역을 만든다는 설명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대표적수요이론은 린더의 이론으로, 비슷한 소득수준과 수요구조를 가진 국가 간 제조업 교역을 설명한다. 틀린 부분은 '제품차별화와 규모의 경제로 동종산업 간 무역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대표적수요이론은 수요구조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② X
제품수명주기이론은 버논의 이론으로, 제품의 도입기·성장기·성숙기에 따라 생산국과 수출입 방향이 바뀌는 과정을 설명한다. 틀린 부분은 '동종산업 간 무역을 제품차별화와 규모의 경제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제품수명주기이론은 시간 경과에 따른 생산입지 변화와 무역패턴 변화를 설명한다.

③ O
산업내무역이론은 동일 산업 안에서 차별화된 상품이 상호 교역되는 현상을 설명하며, 핵심 근거가 제품차별화와 규모의 경제이다. 지문의 '동종산업 간 무역', '차별화된 제품의 다양성', '규모의 경제'가 이 이론의 직접적인 키워드이다.

④ X
기술격차이론은 포스너의 이론으로, 기술혁신과 모방 사이의 시차 때문에 무역이 발생한다고 본다. 틀린 부분은 '소비자의 다양성 선호와 규모의 경제에 따른 산업내 교역'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기술격차이론은 국가 간 기술수준 차이와 모방지연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오답 포인트

대표적수요이론도 비슷한 국가 간 공산품 무역을 설명하므로 ①과 ③을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①의 핵심어는 수요구조의 유사성이고, ③의 핵심어는 제품차별화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한 산업내무역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에 동종산업 간 무역, 차별화된 제품, 규모의 경제, 소비자의 다양성 선호가 함께 나오면 산업내무역이론을 먼저 떠올리면 된다. 수요유사성이 나오면 대표적수요이론, 기술혁신 시차가 나오면 기술격차이론, 제품 단계별 생산지 이동이 나오면 제품수명주기이론으로 구분된다.

암기 포인트

산업내무역이론 = 동종산업 간 교역 + 제품차별화 + 규모의 경제이다.

NoteBase

문 16. 선하증권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Stale B/L은 선하증권의 제시가 지연되어 효력을 상실한 선하증권으로,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서 선적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ㄴ. Long Form B/L은 필수 기재사항은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이 생략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ㄷ. Charter Party B/L은 선주와 용선계약을 체결한 용선자가 용선한 선박을 이용하여 제3자의 화물을 운송할 때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ㄹ. House B/L은 운송할 화물이 한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는 소량인 경우, 운송주선인이 동일한 목적지로 가는 화물을 혼재하여 운송할 때 운송인이 운송주선인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선하증권의 유형별 정의와 발행 주체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Stale B/L은 신용장거래에서 선적일 후 제시기간을 넘겨 제시된 선하증권이다.
Long Form B/L은 운송조건과 이면약관까지 모두 인쇄된 완전형 선하증권이다.
Charter Party B/L은 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된 화물에 대해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House B/L은 혼재화물 운송에서 운송주선인 또는 NVOCC가 개별 화주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며, 운송인이 운송주선인에게 발행하는 것은 Master B/L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ㄱ은 옳다. UCP600상 별도 약정이 없으면 선적일로부터 21일을 넘겨 제시된 선하증권은 stale B/L로 본다.
ㄷ도 옳다. Charter Party B/L은 용선계약이 체결된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할 때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따라서 ㄱ, ㄷ의 조합인 ①이 정답이다.

② X
ㄱ은 옳지만 ㄹ이 틀리다. House B/L은 운송주선인이나 NVOCC가 화주에게 발행한다. 틀린 표현은 '운송인이 운송주선인에게 발행하는'이고, 올바르게는 '운송주선인이 화주에게 발행하는'이다. 운송인이 운송주선인에게 발행하는 것은 Master B/L이다.

③ X
ㄷ은 옳지만 ㄴ이 틀리다. Long Form B/L은 이면약관이 생략된 형식이 아니라 이면약관까지 모두 기재된 형식이다. 틀린 표현은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이 생략된'이고, 올바르게는 '이면약관까지 인쇄된'이다. 이면약관을 생략한 것은 Short Form B/L이다.

④ X
ㄴ과 ㄹ이 모두 틀리다. ㄴ은 Long Form B/L과 Short Form B/L을 뒤바꾼 설명이고, ㄹ은 House B/L과 Master B/L의 발행 주체를 뒤바꾼 설명이다. 따라서 ④는 성립할 수 없다.

오답 포인트

롱폼과 쇼트폼은 이면약관의 유무로 구별하고, House B/L과 Master B/L은 누가 누구에게 발행하는지로 구별한다는 점이 자주 뒤섞인다. 특히 ㄹ처럼 혼재화물이라는 상황 설명이 붙으면 House B/L이라고 성급히 판단하기 쉽지만, 발행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하증권 유형 문제는 먼저 구별축을 잡으면 된다. 제시기간을 넘겼는지 보면 stale B/L, 이면약관 포함 여부를 보면 long form과 short form, 용선계약 존재 여부를 보면 charter party B/L, 발행 주체가 운송주선인인지 운송인인지 보면 house B/L과 master B/L을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Stale는 21일 제시기간 경과, Long Form은 이면약관 포함, House는 포워더가 화주에게, Master는 운송인이 포워더에게 발행한다.

NoteBase

문 17.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서 확인은행(confirming bank)의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확인은행은 신용장이 매입(negotiation)의 방법으로 이용가능한 경우, 상환청구(recourse)가 가능한 조건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② 확인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는 시점부터 취소 불가능한 결제(honour) 또는 매입의 의무를 부담한다.

③ 확인은행은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에 대해 결제 또는 매입을 한 다른 지정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의 확인을 요청받은 은행이 이를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에 그 은행은 지체 없이 개설은행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고, 신용장에 대한 확인 없이 통지만을 할 수 있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UCP600상 확인은행의 확정적 의무와 단순 지명은행의 지위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확인을 추가한 시점의 불가역적 의무, 무소구 매입, 다른 지명은행에 대한 상환의무, 확인 거절 시 통지의무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신용장에 자신의 독립적인 결제 또는 매입확약을 추가한 은행이다.
매입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서류나 환어음을 사들여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

핵심 구분

확인은행은 신용장 개설 시점부터가 아니라 확인을 추가한 시점부터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독립적으로 honour 또는 negotiation 의무를 부담한다.
확인은행 자신이 매입하는 경우에는 무소구로 매입한다.
또한 다른 지명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결제 또는 매입하고 서류를 확인은행에 송부하면, 확인은행은 그 지명은행에 상환할 의무를 진다.
반대로 확인하지 않은 지명은행은 단순히 서류를 수령·심사·송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honour 또는 negotiation 의무를 지지 않는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24 · 2차

선지별 해설

① X
확인은행이 매입하는 경우는 소구 가능 매입이 아니라 무소구 매입이다.
틀린 표현: "상환청구(recouse)가 가능한 조건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올바른 표현: "확인은행은 매입하는 경우 무소구로 매입하여야 한다."

② X
확인은행의 불가역적 honour 또는 negotiation 의무는 신용장이 개설된 때가 아니라 그 은행이 확인을 추가한 때부터 발생한다.
틀린 표현: "신용장을 개설하는 시점부터"
올바른 표현: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한 시점부터"

③ X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다른 지명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하고 서류를 확인은행에 송부한 경우, 확인은행은 그 지명은행에 상환할 의무를 진다.
틀린 표현: "상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올바른 표현: "상환할 의무를 진다."

④ O
개설은행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은행이 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개설은행에 알려야 하고, 확인을 추가하지 않은 채 신용장을 통지만 할 수 있다.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확인을 추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포인트

①은 매입의 소구 여부를 반대로 바꾸어 헷갈리게 만든 선지이다.
②는 개설은행의 신용장 발행시점과 확인은행의 확인 추가시점을 섞어 놓은 함정이다.
③은 확인은행의 다른 지명은행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정하여 확인은행과 단순 지명은행의 지위를 뒤집어 놓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confirming bank가 나오면 먼저 그 은행이 확인을 실제로 추가했는지 본다.
그다음 자기 매입은 무소구인지, 다른 nominated bank가 일치 제시에 따라 결제 또는 매입한 경우 상환의무가 있는지, 확인을 거절하면 지체 없이 통지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대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확인은행은 확인 추가 시점부터 독립의무를 지고, 자기 매입은 무소구이며, 다른 지명은행에는 상환한다.

NoteBase

문 18. 해외시장 진입방식에서 루트(F. R. Root)의 점진적 학습과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이 해외시장 진입방식을 결정할 때 기업 내부요인과 외부요인 두 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기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지시장의 마케팅활동에 대한 통제를 보다 강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진입방식을 변화시킨다.

③ 기업의 해외시장 진입방식을 동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④ 국제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입하는 적합한 시기와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루트의 점진적 학습과정모형이 해외시장 진입방식을 정태적 최적선택이 아니라 경험 축적에 따른 단계적 변화로 본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루트의 점진적 학습과정모형은 기업이 해외경험을 쌓을수록 위험 인식이 낮아지고 현지활동에 대한 통제와 자원투입을 점차 높이면서 진입방식을 단계적으로 바꾼다고 본다.
이 모형의 핵심은 최적 진입시기나 정답이 되는 단일 방식의 제시가 아니라,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을 고려한 선택이 시간 경과와 학습에 따라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동태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기업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을 함께 고려한다는 설명은 맞다. 기업의 자원, 경험, 통제 필요성과 시장환경, 위험, 경쟁상황을 함께 보고 진입방식을 정한다.
② O
점진적 학습과정모형은 시간이 지나며 경험이 축적될수록 현지 마케팅활동에 대한 통제와 개입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입방식이 발전한다고 본다. 간접수출에서 직접수출, 판매법인, 현지생산 등으로 심화되는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③ O
이 모형의 의의는 해외시장 진입방식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설명한다는 데 있다. 진입방식을 한 번에 고정하는 선택이 아니라 학습과 경험의 결과로 본다.
④ X
틀린 부분은 "적합한 시기와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표현이다. 루트의 점진적 학습과정모형은 언제 어떤 방식이 최적인지에 대한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모형이 아니라, 경험 축적에 따라 진입방식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변화하는지를 설명하는 기술적 모형이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국제기업의 해외시장 진입방식이 시간 경과와 학습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한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루트 모형을 '최적 진입전략을 처방하는 모형'으로 착각하면 ④를 맞는 설명으로 보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기준을 제시한다'는 규범적 표현과 '변화를 설명한다'는 기술적 표현을 바꿔 놓은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해외시장 진입모형 문제에서 학습, 경험 축적, 통제 강화, 단계적 변화가 나오면 동태적 설명모형으로 본다. 반대로 최적 시기, 최적 방법, 의사결정 기준을 직접 제시한다고 하면 규범적 처방모형인지 먼저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루트 점진학습모형은 경험 축적, 통제 강화, 단계적 심화의 모형이며 최적 진입시기 제시 모형은 아니다.

NoteBase

문 19. 다국적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릴리엔탈(D. E. Lilienthal)은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활동을 전개하면서 경영자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을 다국적기업으로 정의하였다.
ㄴ. 아하로니(Y. Aharoni)는 세계시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각국의 경영전략을 유기적으로 조정하는 기업을 다국적기업이라고 하였다.
ㄷ. 버논(R. Vernon)은 포춘(fortune)이 선정하는 세계 500대 기업에 연 2회 이상 포함되어 있으며, 6개국 이상에서 현지 생산활동 및 판매활동을 하는 기업을 다국적기업으로 정의하였다.
ㄹ. 커처(D. P. Kircher)는 다국적기업을 구조적 다국적성, 성과적 다국적성, 형태적 다국적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다국적기업의 대표 학자별 정의와 분류기준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릴리엔탈: 다국적기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 2개국 이상에서 생산활동을 하면서 경영자가 세계적 차원에서 연구개발, 생산, 판매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을 강조하였다.
버논: 포춘이 선정하는 세계 500대 기업에 연 2회 이상 포함되고 6개국 이상에서 현지 생산과 판매를 하는 기업이라는 구조적 기준으로 다국적기업을 설명하였다.
아하로니: 구조적 기준, 성과기준, 행태적 기준을 함께 보는 종합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커처: 초국적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인물로 정리되며, 구조적·성과적·행태적 기준의 3분법을 제시한 인물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ㄱ은 릴리엔탈의 정의와 일치하고, ㄷ은 버논의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은 조합이다.
② X: ㄱ은 맞지만 ㄹ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커처가 구조적 다국적성, 성과적 다국적성, 형태적 다국적성으로 분류하였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아하로니가 구조적 기준, 성과기준, 행태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올바른 조합은 "ㄱ, ㄷ"이다.
③ X: ㄷ은 맞지만 ㄴ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아하로니는 세계시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각국의 경영전략을 유기적으로 조정하는 기업을 다국적기업이라고 하였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아하로니는 대상국가 수, 해외부문 비중, 경영자의 국제적 사고 여부 등을 함께 보는 종합기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올바른 조합은 "ㄱ, ㄷ"이다.
④ X: ㄴ과 ㄹ이 모두 틀리다. ㄴ은 아하로니의 정의를 잘못 연결한 것이고, ㄹ은 아하로니의 기준을 커처에게 잘못 연결했을 뿐 아니라 "행태적"을 "형태적"으로 바꿔 놓았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이다.

오답 포인트

아하로니의 종합기준과 커처의 용어 사용을 서로 바꿔 붙이고, "행태적"과 "형태적"처럼 비슷한 어휘를 섞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 유형은 학자명 옆의 대표 손잡이로 먼저 판단한다. 릴리엔탈은 최초 용어 사용과 세계적 의사결정, 버논은 포춘 500대 기업과 6개국 기준, 아하로니는 구조·성과·행태의 종합기준으로 연결하면 빠르게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릴리엔탈은 용어와 글로벌 의사결정, 버논은 포춘 500대 기업과 6개국, 아하로니는 구조·성과·행태이다.

NoteBase

문 20. 차크라바티(B. S. Chakravarthy)와 펄뮤터(H. V. Perlmutter)의 EPRG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본국시장중심(ethnocentric)에서는 해외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② 현지시장중심(polycentric)에서는 기업활동이 주로 현지국시장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며, 의사결정이 현지 자회사 위주로 이루어진다.

③ 지역시장중심(regioncentric)에서는 현지국에 소재한 자회사가 현지의 사정에 적합한 경영을 위해 본사의 간섭 없이 독자적인 마케팅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활동이 본국의 본사 책임하에 국제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④ 세계시장중심(geocentric)에서는 전 세계를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하여 생산비가 가장 저렴한 곳에서 생산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등 경영활동이 세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차크라바티와 펄뮤터의 EPRG 모델에서 본국시장중심, 현지시장중심, 지역시장중심, 세계시장중심의 의사결정 주체와 시장 범위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본국시장중심은 해외활동도 본국 본사가 통제하는 관점이다. 키워드는 본사 중심, 중앙집권이다.
현지시장중심은 각 현지 자회사가 현지 시장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관점이다. 키워드는 현지 적응, 자회사 자율이다.
지역시장중심은 국가별이 아니라 지역권 전체를 하나의 관리 단위로 보고 지역 차원에서 전략을 조정하는 관점이다. 키워드는 권역 통합, 지역본부 조정이다.
세계시장중심은 전 세계를 통합적으로 보며 최적 생산과 판매를 세계적 관점에서 배분하는 관점이다. 키워드는 글로벌 최적화, 세계적 자원배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본국시장중심에서는 해외활동 관련 의사결정이 본국 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해외시장을 본국의 연장선으로 보고 본사가 핵심 권한을 가진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2번 O: 현지시장중심에서는 기업활동이 현지국 시장 수요 충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의사결정도 현지 자회사에 많이 위임된다. 현지 적응과 자회사 자율성을 말하므로 옳다.
3번 X: 틀린 부분은 지역시장중심을 마치 개별 현지 자회사의 독자 경영처럼 설명한 점이다. 제시문 전반은 현지시장중심의 특징에 가깝다. 지역시장중심은 개별 국가 자회사가 제각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유럽권, 아시아권처럼 지역권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지역본부가 권역 차원에서 목표와 계획을 조정하는 형태이다.
4번 O: 세계시장중심은 전 세계를 통합적으로 보고 생산과 판매를 글로벌하게 최적화하는 관점이다. 생산비가 유리한 곳에서 생산하고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판매한다는 설명은 세계시장중심의 취지와 부합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현지시장중심과 지역시장중심을 모두 현지 적응으로만 묶어 이해하면 3번에 속기 쉽다. 현지시장중심은 국가별 자회사 자율이 핵심이고, 지역시장중심은 여러 국가를 묶은 권역 단위 조정이 핵심이라는 차이를 놓치면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EPRG 문제는 먼저 의사결정의 중심이 본사인지, 현지 자회사인지, 지역본부인지, 전 세계 최적화 관점인지부터 본다. 그다음 시장 범위가 한 국가인지, 지역권인지, 세계 전체인지 연결하면 정답을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Ethno는 본사, Poly는 현지국, Regio는 권역, Geo는 전 세계라는 축으로 기억하면 정리가 된다.

NoteBase

문 21. 다음 (가) ~ (다)에 들어갈 해상보험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피보험자가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를 추정전손으로 처리하도록 잔존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가)(이)라고 하며, 피보험자는 이를 결정한 경우 보험자에게 (나)를 하여야 한다. 만약 피보험자가 (나)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손해는 (다)로 처리된다.

① (가): abandonment, (나): notice, (다): partial loss

② (가): subrogation, (나): acceptance, (다): actual total loss

③ (가): abandonment, (나): notice, (다): actual total loss

④ (가): subrogation, (나): acceptance, (다): partial loss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해상보험의 위부(abandonment), 위부통지(notice), 분손(partial loss),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의 개념과 연결관계를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위부(abandonment)는 피보험자가 추정전손으로 처리받기 위해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위부통지(notice)는 피보험자가 위부 의사를 보험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분손(partial loss)은 전손에 이르지 않은 일부손해이고,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은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부 멸실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지문은 추정전손 처리를 위해 잔존물 권리를 보험자에게 넘기는 위부(abandonment)를 설명한다. 피보험자는 위부를 하기로 했으면 보험자에게 위부통지(notice)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추정전손으로 처리되지 않아 분손(partial loss)으로 처리된다.
2번: X. 틀린 부분은 (가)를 subrogation, (나)를 acceptance, (다)를 actual total loss로 둔 점이다. subrogation은 보험금 지급 후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대위의 개념이지, 추정전손 처리를 위한 위부가 아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하는 행위는 acceptance가 아니라 notice이고, 통지가 없을 때의 처리는 현실전손이 아니라 분손이다.
3번: X. (가)와 (나)는 맞지만, 틀린 부분은 (다)를 actual total loss로 둔 점이다. 위부통지를 하지 않으면 추정전손으로서의 전손 처리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현실전손이 아니라 분손으로 처리된다.
4번: X. 틀린 부분은 (가)를 subrogation, (나)를 acceptance로 둔 점이다. 지문은 대위가 아니라 위부를 설명하고 있으며, 보험자에게 필요한 절차도 acceptance가 아니라 위부통지이다. (다)의 partial loss만 맞고 앞의 두 용어가 틀려서 오답이다.

오답 포인트

위부와 대위를 둘 다 권리 이전으로만 외우면 쉽게 섞인다. 위부는 추정전손을 전손처럼 처리받기 위해 잔존물 권리를 넘기는 것이고, 대위는 보험금 지급 후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가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전 대상과 단계가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 추정전손, 잔존물 권리 양도, 보험자에 대한 통지가 함께 나오면 먼저 위부와 위부통지를 떠올리면 된다. 그다음 통지가 없을 때 전손이 아니라 분손 처리된다는 연결만 확인하면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추정전손은 위부로 전손 처리되고, 위부통지가 없으면 분손 처리된다.

NoteBase

문 22. 기업국제화의 공통적 결정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카부스길(S. T. Cavusgil)과 네빈(J. R. Nevin)은 제품에 대한 경험, 마케팅 필요조건, 제품의 유통구조, 무역장벽을 중요시하였다.

② 빌키(W. J. Bilkey)는 기업특유의 비교우위, 경영관리자의 기업목표 달성의지, 예상되는 수출의 기업목표 기여도, 수출에 대한 조직참여 정도를 중요시하였다.

③ 데이비드슨(W. H. Davidson)과 해리건(R. Harrigan)은 제품 및 시장의 특성, 시장진출 순서 및 시기를 중요시하였다.

④ 요한슨(J. Johanson)과 비더사임-폴(F. Wiedersheim-Paul)은 사회적·문화적·심리적 거리감과 현지시장의 규모를 중요시하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업국제화의 결정요인을 학자별 대표 키워드와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카부스길·네빈은 기업특유 우위, 경영자의 수출의지, 예상 수출기여도, 조직참여 같은 기업 내부요인을 중시한 연구이다.
빌키는 수출행동을 설명하면서 기업의 비교우위와 경영자 태도, 수출의 기대효과 같은 내부요인을 중요하게 본 연구 계열이다.
데이비드슨·해리건은 제품과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의 순서와 시기를 어떻게 잡을지를 중시한 연구이다.
요한슨·비더사임-폴은 심리적 거리감이 작은 시장부터 점진적으로 진입하는 국제화 과정을 설명한 연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카부스길과 네빈은 제품에 대한 경험, 마케팅 필요조건, 제품의 유통구조, 무역장벽을 중요시하였다'는 연결이다. 카부스길·네빈은 이런 외부 제품·시장조건보다 기업특유 비교우위, 경영관리자의 기업목표 달성의지, 예상되는 수출의 기업목표 기여도, 수출에 대한 조직참여 같은 내부 결정요인을 중시하였다.
② O: 빌키의 수출행동 연구는 기업의 비교우위, 경영자의 목표지향과 수출에 대한 기대, 조직 차원의 관여 같은 내부요인을 중시한다. 선지의 연결은 기업 내부요인 중심이라는 점에서 맞다.
③ O: 데이비드슨과 해리건은 제품 및 시장의 특성과 해외시장 진출의 순서·시기를 연결해 본다. 어느 시장에 언제 진입할지를 보는 진입순서와 진입시기 문제가 핵심이므로 선지가 맞다.
④ O: 요한슨과 비더사임-폴은 사회적·문화적·심리적 거리감, 곧 psychic distance가 작은 시장부터 진입하는 점진적 국제화를 설명한다. 현지시장 규모 역시 시장선택에서 함께 고려되는 요소이므로 선지가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카부스길·네빈을 외부 제품·시장조건 중심 연구로 바꾸어 놓은 것이 함정이다. 학자 이름이 낯설어도 카부스길·네빈은 내부요인, 데이비드슨·해리건은 진입순서·시기, 요한슨·비더사임-폴은 심리적 거리감이라는 축을 잡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결정요인 문제는 먼저 내부요인형과 외부시장·진입전략형으로 나누어 본다. 경영자 의지·조직참여·기대기여가 나오면 내부요인 연구로, 심리적 거리감이 나오면 요한슨·비더사임-폴로, 시장진출 순서·시기가 나오면 데이비드슨·해리건으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카부스길·네빈과 빌키는 내부요인, 데이비드슨·해리건은 진입순서, 요한슨·비더사임-폴은 심리적 거리감이다.

NoteBase

문 23. 다음 (가)에 들어갈 용어는?

바틀렛(C. A. Bartlett)과 고샬(S. Ghoshal)의 국제경영전략 유형 중 (가)을 추구하는 기업은 생산, 마케팅, 연구개발 활동 등을 가장 유리한 소수의 국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경험곡선효과의 기초가 되는 규모의 경제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 제품과 과정을 세계적으로 표준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① 국제적전략(international strategy)
② 국가별전략(multidomestic strategy)
③ 글로벌전략(global strategy)
④ 초국적전략(transnational strategy)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Bartlett와 Ghoshal의 국제경영전략 유형 중에서 글로벌전략과 국제적전략, 국가별전략, 초국적전략의 구별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제적전략은 본국에서 개발한 핵심역량을 해외로 이전하는 전략으로, 현지 적응 압력도 낮고 글로벌 통합 압력도 낮은 편이다.
국가별전략은 각국 시장 차이에 맞춰 자회사별로 제품과 활동을 현지화하는 전략으로, 현지 적응 압력은 높고 글로벌 통합 압력은 낮다.
글로벌전략은 경험곡선효과와 입지우위를 극대화하려고 생산·마케팅·연구개발 등을 유리한 소수 국가에 집중하고 제품과 과정을 세계적으로 표준화하는 전략이다.
초국적전략은 글로벌 효율성과 현지 적응을 동시에 추구하여 지식과 기능을 여러 국가에 분산·연계하는 전략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국제적전략은 핵심역량을 해외에 이전하는 방식이 중심이며, 문제처럼 생산·마케팅·연구개발을 소수 국가에 집중하고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하는 전략과는 다르다.
틀린 표현은 '국제적전략'이다. 올바르게는 본국 중심의 역량 이전형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② X
국가별전략은 국가별 수요 차이에 맞춘 현지화가 핵심이므로 제품과 과정을 세계적으로 표준화하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국가별전략'이다. 올바르게는 국가별전략은 각국 자회사에 상당한 자율성을 주고 현지 적응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③ O
글로벌전략은 입지우위와 규모의 경제, 경험곡선효과를 활용하려고 가치사슬 활동을 유리한 몇몇 국가에 집중하고 표준화된 제품과 과정을 전 세계에 적용한다. 제시문이 바로 이 특징을 설명한다.

④ X
초국적전략은 효율성과 현지 적응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일부 활동은 통합하되 다른 활동은 분산·조정하는 형태이다. 문제처럼 일방적으로 소수 국가 집중과 전면적 표준화만을 강조하는 설명은 초국적전략보다 글로벌전략에 가깝다.
틀린 표현은 '초국적전략'이다. 올바르게는 초국적전략은 세계적 효율성과 현지 적응의 동시 추구가 핵심이다.

오답 포인트

국제적전략과 글로벌전략을 모두 '본사 중심'으로만 묶어 기억하면 ①과 ③이 헷갈린다. 이 문항의 결정어는 '소수 국가 집중', '경험곡선효과', '세계적 표준화'이며, 이는 글로벌전략의 전형적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나 지문에서 현지화가 강조되면 국가별전략 또는 초국적전략을 먼저 본다. 반대로 집중배치, 규모의 경제, 경험곡선효과, 전 세계 표준화가 함께 나오면 글로벌전략으로 판단한다. 본국의 핵심역량 이전만 강조되면 국제적전략이다.

암기 포인트

글로벌전략은 집중·표준화, 국가별전략은 분산·현지화, 초국적전략은 통합·현지적응의 동시 추구, 국제적전략은 본국역량 이전형이다.

NoteBase

문 2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에서 청약과 승낙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신에 의한 청약인 경우, 청약자가 서신에서 지정한 승낙기간은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② 청약은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③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부가, 제한 그 밖의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이 된다.

④ 연착된 승낙이라도 청약자가 지체 없이 피청약자에게 승낙으로서 유효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CISG상 청약과 승낙의 효력 발생 시점, 수정된 승낙의 효과, 연착된 승낙의 처리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승낙기간의 기산점과 거절·연착 승낙의 법적 효과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청약 =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도록 구속력을 가지고 제시한 계약 체결 제안이다.
연착된 승낙 =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일정한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승낙이다.

핵심 구분

CISG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서신에 의한 청약에서 승낙기간은 청약이 도달한 때가 아니라 서신의 일자, 그 일자가 없으면 봉투의 일자부터 진행된다.
CISG 제17조에 따르면 청약은 거절이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소멸한다.
CISG 제19조 제1항은 변경이 있는 승낙을 원칙적으로 거절과 반대청약으로 본다. 다만 제19조 제2항은 실질적 변경이 아닌 경우를 예외로 둔다.
CISG 제21조는 연착된 승낙도 청약자가 지체 없이 유효 취지를 알리면 효력을 인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서신에 의한 청약에서 승낙기간은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기산하지 않는다. CISG 제20조 제1항은 서신의 날짜, 그 날짜가 없으면 봉투의 날짜부터 승낙기간이 진행된다고 본다.
틀린 표현: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올바른 표현: "서신에 표시된 날짜부터 기산하고, 그 날짜가 없으면 봉투에 표시된 날짜부터 기산한다"
② O: CISG 제17조에 따르면 청약은 철회 불가능한 경우에도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청약의 소멸 시점을 정확히 묻는 선지이다.
③ O: CISG 제19조 제1항은 승낙을 의도한 응답이라도 부가·제한·변경을 포함하면 원칙적으로 청약의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비실질적 변경은 제19조 제2항의 예외가 있으나, 이 선지는 제1항의 원칙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O: CISG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연착된 승낙이라도 청약자가 지체 없이 그 승낙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면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연착 자체만으로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포인트

①은 국내 민법식 도달주의 감각 때문에 쉽게 속기 쉽다. 이 문항은 "승낙기간의 기산점"을 묻는데, 서신 청약의 경우에는 도달시점이 아니라 서신 일자 또는 봉투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③은 제19조 제2항의 예외를 떠올리면 흔들릴 수 있으나, 선지 자체는 제1항의 원칙 진술로 처리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CISG 청약·승낙 문제는 먼저 무엇을 묻는지 나누어 본다. 기간의 시작을 묻는지, 거절의 효과를 묻는지, 변경된 승낙의 효과를 묻는지, 연착된 승낙의 예외를 묻는지 구분하면 정답이 빨라진다. 특히 서신 청약의 승낙기간은 도달시점이 아니라 서신 일자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대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서신 승낙기간은 도달이 아니라 서신 일자, 변경된 승낙은 원칙적으로 반대청약, 연착된 승낙은 통지로 살릴 수 있다.

NoteBase

문 25.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재판정”이란 개개의 사건을 위하여 선정된 중재인이 내린 판정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회부한 상설 중재기관이 내린 판정도 포함한다.

② 중재에 회부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결정이 중재판정에 포함된 경우, 중재에 회부한 사항에 관한 결정이 중재에 회부하지 아니한 사항과 분리될 수 있더라도 중재에 회부한 사항에 관한 결정 부분의 판정은 승인 및 집행될 수 없다.

③ “서면에 의한 합의”란 당사자 간에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서상의 중재조항 또는 중재합의를 포함한다.

④ 이 협약이 적용되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대해서는 국내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엄격한 조건이나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뉴욕협약상 중재판정의 범위, 서면중재합의의 의미, 승인·집행 거부사유, 국내 중재판정과의 비차별 원칙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중재판정은 중재인이 분쟁에 대하여 내리는 판단을 말하며, 뉴욕협약은 외국 중재판정과 비내국판정의 승인·집행 기준을 정한 협약이다.
서면에 의한 합의는 계약서의 중재조항이나 별도 중재합의가 서명 또는 서신·전보의 교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뜻한다.

핵심 구분

뉴욕협약은 승인·집행 거부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다. 중재에 회부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도, 중재에 회부된 부분과 분리될 수 있으면 그 회부된 부분은 승인·집행할 수 있다. 또한 협약 적용 대상 판정에는 국내 중재판정의 승인·집행보다 실질적으로 더 엄격한 조건이나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뉴욕협약 제1조 제2항은 중재판정을 개별 사건을 위하여 선정된 중재인이 내린 판정뿐 아니라 당사자가 회부한 상설 중재기관의 판정까지 포함한다.
2번: X. 틀린 표현은 "분리될 수 있더라도 … 승인 및 집행될 수 없다"이다.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c)는 중재에 회부된 사항에 관한 결정이 나머지와 분리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승인·집행할 수 있다고 본다. 올바르게는 "분리될 수 있으면 중재에 회부된 사항에 관한 결정 부분은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다"이다.
3번: O. 뉴욕협약 제2조 제2항은 서면에 의한 합의에 계약서상의 중재조항 또는 중재합의를 포함하고, 그 형식으로 당사자 서명이나 서신·전보의 교환을 인정한다.
4번: O. 뉴욕협약 제3조는 협약 적용 대상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대하여 국내 중재판정보다 실질적으로 더 가혹한 조건이나 더 높은 수수료·비용을 부과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오답 포인트

2번은 승인·집행 거부사유를 묻는 조항을 거꾸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수험생이 "중재범위 초과"라는 문구만 보고 전부 거부된다고 단정하면 분리가능성 예외를 놓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협약 조문형 문제는 먼저 정의조항, 다음으로 서면합의, 그다음으로 승인·집행 거부사유와 비차별 원칙 순서로 대조하면 풀린다. 특히 거부사유 조문에서는 "분리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인정된다"는 예외 문구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암기 포인트

뉴욕협약은 상설중재기관 판정도 포함하고, 서면합의는 서신·전보 교환도 포함하며, 범위 초과 부분은 분리가능하면 일부 집행이 가능하고, 국내판정보다 더 무겁게 다루지 못한다.

NoteBase